

<서평>

13개 도시들의 유래를 통한 동남아시아 이해 강희정 · 김종호 외. 『도시로 보는 동남아시아사2』. 서울: 사우, 2023.

조 영 목*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들을 소개했던 『도시로 보는 동남아시아사』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1년 만에 『도시로 보는 동남아시아사2』가 출간되었다. 과거에 비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한국에 전해졌지만, 여전히 주요 도시들의 탄생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 책은 전작에서 다루지 않았던 도시 열세 곳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동남아시아 관련 서적들은 주로 개별 국가 혹은 사건을 위주로 서술되어 있었으며, 주요 도시의 관련된 책들은 주로 관광용으로 출판되었다. 이번 책에서 다루는 도시 열세 곳 대부분은 해당 국가의 수도 또는 과거의 수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던 장소다. 수도는 각 나라에서 가장 현대화된 도시로서, 해당 국가의 특징을 축약해서 보여준다. 특히, 도시의 탄생과정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 일부 흔적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확장하며 점차 다른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책에서 설명된 도시는 캄보디아 두 곳, 태국 두 곳, 필리핀 두 곳, 말레이시아 한 곳, 미얀마 한 곳, 인도네시아 두 곳, 베트남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시아국제학부 강사. youngmook531@hanmail.net

두 곳, 라오스 한 곳이다.

이 책의 저자는 총 7명으로 각자의 전공 지식에 기반하여 해당 도시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필자들이 개인 경험과 도시의 구조를 연결 지어 읽기 쉽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해당 도시들을 가지 못한 독자들에게는 필자들이 대신 경험을 공유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책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도시는 캄보디아의 프놈펜이다. 프놈펜은 1834년 당시 캄보디아를 지배하던 크메르 제국에 의해 수도가 되었다. 저자는 프놈펜으로 수도를 이전한 크메르 제국의 결정을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한다. 첫째, 이웃 아유타야 왕국의 팽목할 만한 성장은 크메르 제국에게 끊임없는 위협이 되어 수도를 이전하여 공격에 대비할 목적이 있었다. 둘째, 교역량이 증가했다. 메콩강과 톤레사프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프놈펜은 이 물길을 통해 베트남 및 남중국해와 연결된다. 지리적인 강점을 발견하여 교역을 목적으로 유럽, 아랍, 동북아시아 등에서 사람들이 정착해 프놈펜을 국제적인 도시로 변화시켰다. 당시 교역품이 모두 캄보디아 현지에서 생산되지는 않았지만, 메콩강을 통해 유입된 면직물, 향신료, 코끼리 상아, 코풀소의 뿔 등 동남아시아의 특산물이 주요 교역품이었다. 지정학적인 중요성으로 인해 프랑스가 식민 통치했던 시절에는 4개의 주요 국도와 3개의 철도 노선을 프놈펜에 개설하였다. 하지만 프놈펜은 ‘크메르 루즈’라는 캄보디아의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론 놀은 1970년대 쿠데타를 일으켜 캄보디아 전역을 분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5년 후, 크메르루주가 론 놀을 몰아내고 프놈펜을 점령하며 캄보디아의 절대 권력으로 등극한다. 정권을 잡은 크메르루주는 자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대학살에 나섰다. 크메르루주의 폭정은 행삼린과 훈센이 1979년에 프놈펜을 탈환하면서 끝이 났다. 캄보디아 왕국으로 재편된 1993

년부터 프놈펜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저자는 강대국들과 국내 권력자들에 의해 고통 받던 도시의 모습을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도시는 태국의 수코타이다. 오늘날 인구가 3만 7000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지만, 한때 이곳을 기반으로 동남아 대륙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던 수코타이 왕국의 중심지였다. 과거 왕국의 도시였던 장소는 현재 ‘수코타이 역사도시’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지역은 과거 크메르의 지배를 받았으나, 태국 최초의 통일 왕국을 건설한 의미가 있다. 비록 당시의 영광을 현재까지 지속하지는 않으나, 필자는 수코타이 유적지의 광대한 규모에 주목했다. 수코타이의 전성기를 이끌던 람캄행 왕의 흔적을 살리되, 오랜 시간에 걸쳐 현대화된 성채 내외부가 함께 조화를 이뤄 오늘날 태국의 대표적인 세계문화유산으로 꼽힌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도시는 캄보디아의 시엠립이다. 과거 수도로서 현재는 캄보디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시엠립은 과거 앙코르 왕조의 중심지로서, 앙코르 와트를 비롯한 앙코르 유적이 현재까지 대부분 보존되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주’의 역사적 비극을 거치고, 1980~1990년대에 도굴꾼들이 훼손시키며 앙코르 와트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국가 위기를 경험해도 과거의 영광을 기반으로 국가 재건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던데 반해, 1970년대 이후 캄보디아 지도자들의 근시안적인 시각과 권력욕으로 인해 소중한 세계유산이 완벽하게 보존되지 못한 점은 오늘날에도 아쉬움을 남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앙코르 유적의 보존과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에 알려졌던 앙코르 유적 외에도 저자는 시엠립 주변 톤레사프 호수의 수상 마을을 소개한다. 주로 어업과 양식에 생계를 의존하는 이 마을 사람들 중, 베트남 난민도 있다는 점이 아픈 내전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네 번째로 소개하는 도시는 필리핀의 세부다. 저자는 한국인들에게 휴양 도시로 알려진 세부의 역사적 특징을 서술했다. 세부는 스페인이 가장 먼저 점령하고, 가장 먼저 가톨릭을 받아들였지만 식민지 시대 초에는 마닐라를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 발전은 더디었다. 또한, 작은 항구, 부족한 물산 그리고 적은 인구 때문에 스페인 식민정부가 중점을 둔 깬리온 무역에 적합하지 않았다. 스페인 정부의 깬리온 무역 독점으로 인해 폐쇄되었던 세부는 전 세계에 개방된 1863년부터 본격적인 도시 개발을 경험한다. 특히 19세기 말부터 비자야의 섬들 및 민다나오섬 북부에서 생산될 물품이 집결해 세계 시장으로 수출되는 항구로 거듭났다. 그 당시부터 토지와 상업 네트워크를 형성한 중국계 메스티소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토지 소유, 도·소매업, 교통업에 드러나고 있다. 도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시설 및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은 미국이 지배했던 19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저자는 스페인령 시기와 미국령 시기의 건축된 각 각의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세부의 모습을 묘사하며 도시의 역사적 흔적을 전달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하는 도시는 필리핀의 마닐라다. 역사의 흔적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마닐라를 가리켜 저자는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지칭했다. 스페인령 동인도 시절부터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는 전 세계의 모든 물품이 교역되는 장소였다. 하지만 식민 지배의 모순과 현대사의 어두운 면은 마닐라의 거주민들의 바람을 늘 외면하였다. 스페인의 수탈에 대항했던 호세 리잘과 에밀리오 아기날도의 기념비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애국심의 기반이며, 오늘날까지 차량과 인파가 끊이지 않는 마닐라에서 가장 바쁜 도로인 에드사대로는 민주화의 열망을 표출했던 상징적인 곳이다. 저자는 마닐라 곳곳에 나타난 역사의 흔적을 더 나은 미래를 염원하던 과거 필리핀인들의 열

망으로 묘사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하는 도시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다. 쿠알라룸푸르는 1857년부터 시작된 광산 개발을 위해 유입된 이주민들로 인해 도시로 형성되었다. 주석 채굴과 고무 플랜테이션 등 식민지 수탈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지내던 쿠알라룸푸르는 갈등을 오랫동안 겪었다. 중국계 화인과 말레이인들 사이의 벌어진 경제적 격차 및 민족 갈등은 독립 이후인 1957년까지 지속되었고, 결국 1969년 종족 간 폭력 사태를 겪는다.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민족 간 경제 격차를 줄이려 노력했으며, 쿠알라룸푸르에는 다른 문화 및 종교가 존중과 관용을 바탕으로 공존하는 도시로 탈바꿈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하는 도시는 미얀마의 만달레이다. 쏘바웅 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만달레이는 동남아시아에서 마지막으로 만다라 개념이 적용된 계획도시였다. 만달레이의 도시 구조는 왕권과 종교적 영향력이 결합된 형태로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만달레이의 핵심은 왕궁이며, 왕궁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축물이 왕의 권위와 불국 세계의 실현을 위해 건설되었다. 하지만 영국의 식민 지배 이후 왕성 바깥 곳곳에는 서구식 근대 건축물이 지어졌으며, 오늘날에는 중국에서 대량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도시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만달레이의 도시 특성과 영국의 식민 지배 이후 건설된 코스모폴리탄 도시들을 비교하며 차이점을 강조한다.

여덟 번째 도시는 인도네시아의 우붓이다. 발리섬 중남부에 위치한 우붓은 문화예술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우붓 왕족인 라카수카와띠는 20세기 초에 서구의 예술가들을 우붓으로 초청하고, 초청된 예술가들은 발리의 자연을 배경으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발리의 화가들 역시 그들의 영향을 바탕으로 ‘우붓 양식’이라는 새

로운 화풍을 창조했다. 하지만 저지는 관광지로 발전한 우뚝에서 더 이상 자연 친화적인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없는 사실에 아쉬움을 나타낸다.

아홉 번째 도시는 베트남의 다낭이다. 이전까지 베트남의 주요 항구 역할을 했던 호이안을 대신하여 프랑스 식민정부는 다낭을 대체지로 선정했다. 다낭은 프랑스 식민정부가 전략적 위치와 해상무역의 잠재력을 인식해 항구로서의 인프라 개발에 힘을 기울였다. 따라서 항구, 철도, 도로 등 도시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외국인들에게 최적의 무역 도시가 되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 이후,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던 남베트남군과 미군에게도 주요 공군기지과 물류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전쟁 중 다낭은 막대한 피해를 경험했으며, 보트피플 난민들의 주요 해상 탈출로였다. 1980년대부터 도시 재건이 되면서 오늘날에는 베트남 경제와 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근현대사에서 다낭은 물류와 군사적 요충지였지만, 현재는 대표 관광지로서 역경 극복의 상징이 되었다.

열 번째 도시는 베트남의 후에다. 아직 후에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베트남 최초의 통일 왕조인 응우옌 왕조의 수도였다. 하지만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거치고 베트남 전쟁 등을 겪으며 후에는 근현대 베트남 격전지의 중심이 되었다. 베트남이 남북으로 갈라졌던 시기에는 북베트남 인민군에 의해 ‘후에 대학살’이 자행되었고, 베트남 전쟁 중에는 미군의 폭격으로 엄청난 수의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응우옌 왕조의 역사 유물의 파괴 되었다. 다행히도 베트남 정부의 쇄신을 통해 응우옌 왕조의 유적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저지는 전쟁의 참상을 겪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열한 번째 도시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다. 400년 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식민도시 ‘바타비아’로 개발되었던 자카르타는 화인

의 이주 및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의 목적으로 19세기부터 도시 규모가 확장되었다. 독립을 한 1949년 이후로도 해수면 상승과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의 확장은 지속되었다. 도시 확장과 더불어 경제가 성장했지만, 물가도 동시에 상승하며 도시의 빈부격차가 커졌다. 저자는 시기별로 가상의 자카르타 거주민을 글에 등장시키며 일반 서민들이 자카르타에서 경험한 경제적 어려움을 묘사하였다.

열두 번째 도시는 태국의 치앙마이이다. 란나 왕국의 수도였던 치앙마이는 정복자들이 점령하고 싶어하던 곳 이었다. 1588년 란나 왕국이 버마의 따웅우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되어, 치앙마이는 약 200년간 버마의 영토가 되었다. 그때부터 도시에 버마 양식의 건물들이 지어졌다. 이후, 티크 목재 주산지로서 영국, 프랑스, 중국도 이 지역을 탐냈다. 영국-버마 전쟁으로 인해 영국이 태국과 ‘보우링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곳은 태국의 영토가 되었고, 미국인 기독교 선교사가 선교활동도 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치앙마이를 거처며 건축한 건물들을 놓고 저자는 ‘국제 박람회장’ 같은 도시의 모습을 전한다.

열세 번째 도시는 라오스의 비엔티안이다. 저자는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엔티안 곳곳에 녹아든 역사의 흔적을 설명한다. 아직까지 라오스의 역사가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랑스의 보호령과 베트남 전쟁을 겪으며 역사의 혼돈을 겪은 비엔티안이 역사를 만드는 라오스 사람들의 중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역사의 혼돈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는 현재의 비엔티안의 모습으로 글을 마무리 한다.

이 책의 특징은 기존에 각 도시의 알려진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독자들이 알기 힘든 부분까지 추가로 설명한 점이다. 무엇보다 저자 개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역사적 사실과 결합하여 서술한다. 도시의 일반적인 모습은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관광책을 통해

접할 수 있지만, 이 책을 통해 각 도시의 아픈 역사를 공감할 수 있게 만든다. 방문하는 도시의 역사를 통해 현지의 거주민들을 더 이해하면서, 직접 방문하게 될 경우 해당 도시와 그곳의 구성원들을 존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 책을 접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기존의 1, 2권은 어느 정도 알려진 도시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달했다면, 다음 연구에서는 현지인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도시의 내용이 나오면 흥미로울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저자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감 있는 현지 상황을 전달하기 때문에, 다음 연구도 비슷한 방식으로 서술된다면 더 흥미로운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